

# 환경친화도시 구축 탄력

### 익산시, 500만 그루 나무심기 통해 '도시숲' 확대 도로 화단·공원 정비 등 관광객 맞이 선제 대응

익산시가 도심 정비와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 특히 익산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은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른 관광객 맞이와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 준비에 박자를 가하는 한편 시민에게는 휴식과 힐링 장소 제공으로 건강권 확보에 나선다.

익산시가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목표는 50만 8,000그루이다. 최근까지 50만9천 그루 식재를 완료하며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했다.

그동안 익산시는 영등동과 모현동 배산택지, 부송동 일대 유흥부지에 7,8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이리중과 여산초, 용안초 등 6곳의 학교에 1만3천여 그루를 심어 명상숲을 조성하는 등 녹지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중앙체육공원에 무궁화 도시숲 조성 등 무궁화 하나를 주도로 도로변에 나무 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녹색 공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심 가로수와 공원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돌입했다. 우선 약 14억을 투입해 노후화된 1·2공단과 선화로, 무왕로, 고봉로 등 주요 도로의 화단을 정비했다. 도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영산홍 등 5만5천 그루를 심어 도로변에 연결형 피녹지를 확충했으며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정지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 주변 유흥공간에 터널식 복층 가로숲길을 조성하는 작업도 한창이다. 어양동 일대에 보도블럭 대신 다양한 나무를 심고 있으며 완공되면 도심 속 휴식 공간 제공 뿐 아니라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 곳곳에 조성된 도시숲과 공원에 대해서도 일제정비가 실시되고 있다. 지역에는 도시숲 64곳과 공원 75곳, 녹지공간 50곳이 조성돼 있으며 이곳에 전지, 예초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라산자연마당 생태습지와 송정재 수변공원에 미꾸라지를 방사에 해충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정비로 쾌적한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익산시는 현재 조성 중인 13곳의 도시숲을 포함해 올해 16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속적으로 도시숲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숲교육과 치유를 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로



익산시가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다.

구축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숲과 꽃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계절별로 꽃밭을 조성해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시가 직영하는 목천 양묘장 등 3곳에서 연간 16종, 100만본을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계절별로 주요도로변 42.4km에 꽃을 심고 있다. 본격적인 관광시즌을 맞아 여름꽃 30만본을 양묘하여 꽃밭을 조성할 예정이며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지역 내 84개 교육기관 및 읍·면·동에 6월과 9월 2회에 걸쳐 약 16만본의 계절꽃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북대학교 특성화 캠퍼스 유흥부지 5,000㎡를 활용해 캠퍼스 꽃밭을 조성하고 시 경계 진입로와 주요 공공시설 주변에 꽃 특화거리 조성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전환하고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쾌적한 환경조성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관광객 유입은 물론 시민에게는 건강권 확보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가 9일부터 세계유산인 미륵사지 일원 및 백제왕궁(익산왕궁리유적)에서 세계유산 활용사업인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사업을 진행한다.

## 박물관 품은 미륵사지'로 오세요

###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본격... 야외서 10월까지 진행

익산시가 9일부터 세계유산인 미륵사지 일원 및 백제왕궁(익산왕궁리유적)에서 세계유산 활용사업인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사업을 진행한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2020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는 문화재청, 전라북도, 익산시가 주최하고 룩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세계유산 활용사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유산인 백제왕궁, 미륵사지를 탐방하며 무왕의 도시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야외에서만 진행되는 본 행사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백제왕궁과 미륵사지를 명사와 함께하는 탐방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2시부터는 국립익산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매주 일요일 2시에는 미륵사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음악 공연이 진행된다. 탐방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QR코드)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익산시는 "세계유산을 활용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무왕의 도시 익산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러나 코로나19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지장이 완화되었지만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기상 상태 및 코로나19의 진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참여 및 일정 문의 등 자세한 내용은 룩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luxephil@gmail.com)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 삼익유가공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

익산 왕궁면에 소재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식품가공 유치를 하고 있다. 7일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주)삼익유가공 이범이 대표와 정현을 익산시장 강해원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 윤태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삼익유가공(대표 이범이)은 1987년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최초 유청 분말을 생산하여 현재 전지분유, 커피프리머, 유당, 유산균 등의 다양한 식품 배이스를 생산하고 있다. 탄탄한 B2B 영업망에 더해 최근 B2C 시장에 진출한 국내 유가공업체를 이끌어온 대표기

업이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1만4,139㎡(4,276평) 부지에 약 130억원을 투자해 20명을 고용 창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주)삼익유가공은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유산균 제품을 생산해 유가공 전문에서 식품·바이오로 사업영역을 과감히 확대하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구상중이다. 이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농식품원료, R&D, 판로, 수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익산시, 농식품부, 전라북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활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가맹점 급증

### 수수료 절감효과 소비자 환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한 군산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가맹점과 소비자 서비스가 원하는 상생어플로 배달앱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팽창과 코로나 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부

담인 기존 민간어플의 가입비와 광고료를 없앤 음식배달어플 '배달의 명수'는 입점희망업체가 출시초기 480여 곳에서 지난 5일 현재 870여곳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공공배달앱의 순기능으로 예상했던 소비자들을 위한 환원혜택 가맹점이 빠르게 늘고 부분이 주목할 점이다.

수송동에서 분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기존 민간어플 사용자 절감부담을 배달의 명수 소비자에게 환원해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상품권 결제 등을 통한 환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노력이 더해져 배달의 명수가 사업 주도 소비자로 원만한 상생어플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생어플의 기대효과를 증명하듯 출시 초기 50여 업체에 불과하던 환원인의 혜택 가맹점은 현재 205개 업체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원광대 고혜민 교수팀 SCI급 저널 논문 게재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대학원 화학과 고혜민 교수 연구팀이 벤자민을 이용한 4차 압모늄염 형성 및 연속적인 탄소-질소 결합 형성을 통한 담코(DABCO)의 고리 열림 반응에 관한 기초연구 논문을 SCI급 저널인 Adv. Synth. Catal. (Advanced Synthesis & Catalysis) 게재 확정을 받았다. JCR 랭킹 상위 5%인 Adv. Synth. Catal. 저널은 유기 화학 분야에 매우 권위 있는 학술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연구는 책임저자인 고혜민 교수 지도로 대학원 석사과정 서정섭(사진 왼쪽) 씨가 주저자, 김대근(사진 오른쪽) 씨가 공동 1저자로 참여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군산시가 '코로나 19'의 확산세 진정에 따라 일상복귀에 중점을 두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7일 강일준 시장을 비롯한 관공소장 및 직원들은 지역 자생단체 회원들과 함께 나눔운동과 수송동, 월명동 일원의 상가 밀집지역 3개소에서 자생단체 회원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에게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에 나섰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활동을 철저히 지속해 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설 특성별 상대적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 지침을 마련 후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한 철새조망대, 체만식물학관 등은 지난 8일부터 문을 열었으며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은 오는 8일부터 각각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